

# 陰宅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

崔 昌 祚

## 《目 次》

- |              |                      |
|--------------|----------------------|
| 1. 研究目的 및 範圍 | 4. 聚落 및 慰樂空間의 妥當性 檢討 |
| 2. 陰宅選定의 目的  | 5. 要約 및 結論           |
| 3. 陰宅의 選定方法  |                      |

### 1. 研究目的 및 範圍

筆者는 前日 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을 一次 試圖한 바 있었다.<sup>1)</sup> 上記의 論文에서는 風水를 現實의인 立場에서 살펴볼 수 있는 陽基風水에 局限하여, 주로 서울의 國都 尊都過程에 焦點을 두고 解釋하였다. 本論文은 그와 關聯하여 風水의 또다른 大宗이라 할 수 있는 陰宅을 地理學的으로 解釋하는 데 目的을 두었다.

人文地理學에 있어서 地域의 空間類型과 地域分化를 究明하여 地域秩序를 밝히는 하나의 方法으로, 地表上의 人間現象인 文化와 社會와 生活狀態(life styles) 등을 研究함으로써 所期의 目的을 이루는 接近法이 있을 수 있다.<sup>2)</sup>

風水思想은 高麗以來 歷史上 우리 文化의 全般에 강한 影響을 미쳤고 韓民族의 生活狀態와는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傳統의인 土地觀으로서, 이의 適切한 研究가 韓半島의 地誌的 國土空間秩序 究明에 重要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異見이 없을 것이다.

前考에서는 風水가 대체로 科學的 說明이 不可能한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 中에서 合理的인 部分의 片鱗이나마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結果 國都風水의 原則中 山水環抱,

水口關鎖, 內外水流逆勢 等の 項目과 嶺·湖南의 風水의 山勢比較에 對한 地質構造의 差異의 表出 등을 지적한 바 있었다. 아울러 陰宅의 境遇 그 思考의 推移는 確實히 근거없는 얘기이나 風水目的을 度外視한 陰宅의 定穴法은 그것이 住宅의 基地 選定에 局限하여 利用될 경우 環境知覺上 肯定的인 面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留保를 하여 둔 바 있었다.<sup>3)</sup>

本考에서는 陰宅의 非合理性을 一旦 論外로 하여 두고, 陰宅選定地 環境의 聚落立地論的 妥當性 혹은 慰樂空間(contacting space)의 適合性 與否를 檢討하는데 主目的을 두었다.

그러나 陰宅의 選定方法이 術法書의 內容에 따라 差異를 보이고 있고 術士의 靈驗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一般原理를 導出할 수 없다는 難點이 있다. 이 點은 부득이 比較的인 立場을 유지하며 調査했다고 짐작되며, 특히 當時 最高의 地官으로 高宗 및 純宗의 陵役에 참여했던 北靑사람 全基應의 도움을 받아 出刊한 村山智順의 調査資料를 主텍스트로 하여 克服코자 하였으나 無理가 있음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sup>4)</sup>

다만 여러 術書들의 內容이 原則面에 있어서는 本質的인 差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本考의 內容이 原則面을 벗어나지 않는 한 客觀性은 유

1) 崔昌祚, 朴英漢, 1978, “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 地理學, 第17號, 大韓地理學會, 서울, pp. 21~39.  
 2) de Blij, Harm J., 1977, *Human Geography, Culture, Society, and Space*,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p. 14.  
 3) 崔昌祚, 朴英漢, 前掲書, pp. 36~37.  
 4) 村山智順, 1931, 朝鮮의 風水, 民間信仰 第二部, 朝鮮總督府, 서울.

지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陰宅의 特殊한 境遇인 王陵을 歷史景觀(historic landscape)의인 側面에서 살펴보는 것도 本考의 副次的인 目的으로 重視하였다.

## 2. 陰宅選定の 目的

風水란 그 定義를 한마디로 表現할 수 있는 간단한 概念이 아니다. 대체로 風水란 땅 속에 存在하여 地中을 흘러다니는 生氣에 依賴하여 生活에 影響을 미치는 運命을 良好하게 만들려하는 一種의 土俗的인 運命信仰이라 말할 수 있다.<sup>5)</sup> 山水가 神秘로운 地力을 內含하여 人間生活의 背後에서 人間의 吉凶禍福을 左右한다고 믿고, 거기에 人間과 死靈을 一致·調和시킴으로써 人間生活에 福利를 추구하려고 한 하나의 俗信이라고 볼 수도 있다.<sup>6)</sup>

風水思想을 크게 宣揚한 것은 高麗末의 道說이었는데, 그는 佛教의 善根功德 思想이나 道教의 陰陽五行說 等を 結合해서 이를 폄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風水의 歷史가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前考에서 이미 밝힌 바 있거니와, 道說의 論據를 살펴보는 것도 風水의 意味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에 의하면 地形이나 地勢는 國家나 個人의 吉凶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地理에는 衰旺이 있고 順逆이 있는데, 旺處·順處, 즉 明堂을 택하여 陽基나 陰宅을 지으면 國家나 個人이 幸을 누릴 수 있다. 그 반면에 衰處나 逆處는 人體에 殃을 놓고 疔(灸)을 뜨듯이 佛寺(裨補寺刹)를 세워 災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sup>7)</sup>

즉 風水는 人生에 直接 影響을 미치는 母와 같은 역할을 하는 땅에 의지하여 生活의 發展을 얻고자 하는 東洋的인 地母觀念의 所産으로 볼 수 있다.

筆者는 前考에서 風水를 글자 그대로 바람과 물로 보아, 바람은 氣象 혹은 氣候로 代替시킬 수 있고 물은 用水로 看做하여, 住居를 選定하는 立地條件으로서 風水를 考察해 볼 수 있다는 점

이 風水思想을 現代的 立場에서 照應해 볼 수 있는 基本的 根據가 되는 셈이라고 解釋한 바 있었다.<sup>8)</sup> 이 경우 살아 있는 사람의 住居는 陽基가 되고 죽은 者의 永遠한 居所인 墓地는 陰宅이 되는 것이다.

朝鮮朝以後 우리 나라에 있어서 風水說은 陽基에 대한 것보다 陰宅의 吉凶을 가리는 것으로 偏重되어 왔다. 그 理由를 살펴보면 대체로 陰宅風水의 選定目的이 어디에 있는가도 알 수 있게 된다.

첫째로 大部分이 中國에서 傳來되어 온 風水書나 그것을 拔萃編纂하여 만든 朝鮮風水書는 內容의 大部分이 陰宅에 置重·著述되어 있고 陽基는 附錄 정도로 취급되어 있어 우선 받아들임에 있어서 陰宅에의 傾倒現象을 어찌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다.<sup>9)</sup>

둘째로, 風水의 本質面에서 볼 때, 風水에서는 乘生氣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生氣는 宇宙에 널리 流行되고 있으나 錦囊經에 말한 바와 같이 “氣乘風則散”이라고 하여 地上에서는 바람이 일게 되면 生氣가 흩어지는 것이므로 生氣를 모으고 그것을 乘하는 것, 이른바 “乘生氣”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陰陽之氣 行乎地中 則爲生氣”라고 한 바와 같이 地中을 흐르는 生氣는 그 聚止가 용이하므로 生氣를 입는 것은 葬者의 경우가 容易하다는 點이다.<sup>10)</sup>

세째로, 同氣感應의 思想을 들 수 있다. 즉, 사람은 그 身體를 父母에게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父母의 本骸와 子孫의 遺體와는, 마치 銅山이 西에서 무너져도 영묘한 鍾은 東에서 울듯 서로 感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生氣는 地中을 周行하는 것으로 父母의 本骸가 生氣에 感應하면 그 子孫은 위의 論理에 의하여 自然히 榮華를 누리게 된다. 특히 父母를 根幹으로 子孫을 枝葉으로 취급함으로써 枝葉의 繁茂를 위하여 根幹인 父母의 陰宅을 더욱 重視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sup>11)</sup>

끝으로 韓民族의 追孝觀念이 이를 더욱 助長했으리라는 點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儒家의 祖

5) 崔昌祚, 朴英漢, 前揭書, p. 22.

6) 李熙德, 1976, “風水地理”, 韓國思想의 源泉, 博英文庫 80, 서울, p. 182.

7) 李基白, 1973, 韓國史新論, 一潮閣, 서울, pp. 128~129.

8) 崔昌祚, 朴英漢, 前揭書, p. 24.

9) 村山智順, 前揭書, pp. 509~510.

10) 李熙德, 前揭書, p. 213.

11) 村山智順, 前揭書, pp. 4~12.

上崇拜思想과 영합하여 風水를 迷信으로 여기면 서도 그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든 重要的 要因이 있으며 오늘날까지 그 命脈을 잇게 한 理由라고 생각된다.

明의 徐善述·善繼 兄弟가 著述한 有名한 風水 書인 “人子須知” 첫머리에는 風水와 祖上崇拜思想을 調査하여 風水가, 즉 儒家의 追孝觀念인 듯이 引用한 部分이 있다. 그는 孔子, 程子, 朱子, 陸象山의 聖句를 교묘히 利用하여, 不吉한 곳에 不適合한 父母의 葬事를 지내는 것은 不孝莫大하다고 지적한 것이다.<sup>12)</sup> 不孝莫大하다는 것은 當時로서는 바로 亂臣賊子를 意味하며 이는 그들의 價値觀으로 볼 때 죽음보다 오히려 못한 狀況이 되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매우 불명예스러운 지칭이 된다. 그를 解決하기 위해서라도 陰宅風水는 重視될 수밖에 없었다.

즉, 陰宅風水는 自身の 發福을 위한다는 思考와, 父母와 自身은 결국 이어지고 있다는 運命信仰의 性格, 그리고 追孝觀念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나타난 結果的 行爲라 여겨진다.

특히, 風水의 運命信仰의 性格은 一種의 極端的인 環境決定論의 思考로 볼 수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는 retrospective inevitabilism<sup>13)</sup>이 될 수도 있다.

### 3. 陰宅의 選定方法

陰宅의 選定方法은 陽基의 境遇와 比較해 볼 때 根本的 差異를 갖는 것은 아니다. 細部的으로 약간의 差異가 있는 것은 事實이나 巷間에 알려진 바와 같은 反對的 過程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잘못 전해진 俗說이다. 따라서 陰宅의 選定方法은 결국 風水의 法術과 同一한 概念으로 보아도 무방한 用語이다.

靑鳥經에 “察以眼界 會以性情 若能悟此 天下橫行”이란 말이 있고 錦囊經에는 “奪神工 改天命”이란 句節이 나온다. 이는 經書의 正統性을 保持해 온 立場에서 본다면 確實히 逆天的인 異端이지만 風水의 法術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生氣를 感應받을 수 있는 根據가 마련되어지게 되는 것

이다.

즉, 生氣 있는 곳을 찾는 方法이 곧 陰宅의 選定方法이 된다.<sup>14)</sup>

陰宅의 選定은 實際에 있어서는 물론 術士 혹은 地官의 複合的 經驗과 靈驗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들의 選定過程을 便宜上 區分하면 대체로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占穴法의 네 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風水의 構成要素가 山·水·方位의 세 가지로 되어 있음을 意味한다. 위에서 龍이라 함은 山을 말한다. 穴이란 醫學의 銅人圖와 같이 穴구멍이 定해져 있으니 山龍의 穴도 그 定해진 穴處가 있어 生氣가 聚注하는 곳을 뜻한다.<sup>15)</sup>

以上 네 段階의 各各의 方法은 지나치게 複雜하여 本考에서 要約하여 言及할 性質의 것이 되지 못한다. 다만 山과 水에 關하여 가장 基本이 되는 山勢와 水局에 대해서만 慰樂空間의 適合性을 감안하여 취급할 것이다.

藏風·得水法을 論하기 전에 먼저 山水兩者의 關係를 術法書에 의해 살펴보면, “天地의 道는 陰陽에서 出하는 故로 天의 陰陽은 星辰에 있고 地의 陰陽은 山에 있다. 地理의 陰陽은 天道의 陰陽과 다르니 대개 天道의 盈虛와 消長을 알고자 할진대 星辰의 位氣를 窮究할 것이오, 地理의 吉凶禍福을 察코져 할진대 山川의 動靜을 極察할 것이니 大抵 動者는 陽이오 靜者는 陰인 故로 山體가 峙한 즉 陰에 屬하고 水勢가 射流하고 動하면 陽에 屬하나니 恰似 人의 夫婦가 相承하여야 孕育코 生成하는 理가 있는 즉 夫와 婦가 相離하면 어찌 孕生의 理가 있으며 山과 水도 相離하면 어찌 氣脈의 專을 結하리오. 然則, 山에는 山의 陰陽이 있고 水에는 水의 陰陽이 있으니”<sup>16)</sup>하여 山水는 서로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면서도 서로 그 本性을 달리 함을 밝히고 있다. 여하튼 山水는 陰宅選定時 陰陽의 關係로서 반드시 結合되어 나타날 것을 要求하고 있는 點이 特異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年平均 降水量이 960 mm로서 比較的 濕潤한 地域에 속하고 山地도 많은 75%의 國土面積을 차지하기 때문에 山水結合의 樣相은 事實上 韓半島 全域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條

12) 韓松溪, 1975, 風水地理明堂全書, 明文堂, 서울, pp. 9~10.

13) Kolars, John F. and Nystuen, John D., 1975, *Physical Geography: Environment and Man*,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p. 254.

14) 村山智順, 前揭書, pp. 29~32.

15) 韓松溪, 前揭書, pp. 18~19.

16) 金榮昭, 1975, 陰宅要訣, 明文堂, 서울, p. 68. 前考註<sup>33)</sup>의 淸州는 金氏의 住所地로 서울의 誤記임.



그림 1. 藏風山勢의 概要

件이다.<sup>17)</sup>

郭璞의 錦囊經에는 “葬者乘生氣”란 句節과 “經曰 氣 乘風則散 界水則止 古人取之使不散 行之使有止 故謂之風水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란 句節이 있다. 이것이 風水 藏風·得水土의 要諦를 가장 간결하게 나타낸 말이라 생각한다.<sup>18)</sup>

즉, 風水에서는 生氣를 타거나 혹은 잃는 것이 가장 긴요한데 이 生氣는 바람을 맞게 되면 흩어지고 만다. 여기서 藏風의 必要性이 생기는데 이것은 바람을 막자는 것만이 아니고, 그 때문에 흩어지고 사라져가는 生氣 실은 바람을 잘 끌어들여 간수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陰宅의 周圍를 山이 둘러싸고 그 穴에서 陰陽二氣의 結合과 生氣의 活動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때 陰宅을 四方에서 둘러싸고 있는 山의 名稱은 東洋 傳來의 四方守護神觀念과 結合하여 北玄武, 南朱雀, 東靑龍, 西白虎가 된다. 그런데 陰宅은 그 坐向이 原則적으로 子坐午向, 즉 南向이 되기 때문에 陰宅을 中心으로 본다면 그 後山이 玄武, 前方의 山이 朱雀, 左側의 山이 靑龍, 右側의 山이 白虎가 된다.<sup>19)</sup>

郭璞은 그의 錦囊經에서 “玄武垂頭, 朱雀翔舞, 靑龍蜿蜒, 白虎蹲踞”으로 山勢의 大蓋를 表現하였다. 이 중 靑龍, 白虎는 穴의 護衛와 藏風을 주된 機能으로 삼기 때문에 風水 構成上 종속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玄武는 그 主山으로서 主體的 立場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그와 對坐한 朱雀는 玄武, 즉 主에 對한 客이요 夫에 대한 婦로서의 機能을 수행하는 砂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藏風을 위한 四方의 山勢는 대체로 그림 1과 같이 된다.<sup>20)</sup>

그런데 朱雀에는 朝山(혹은 朝對山)과 案山의 두 가지가 있다. 朝山이란 穴前의 山이요, 主山에 대한 客山이다. 마치 臣下가 임금에게 알현하는 모습이어서 하기 때문에 결코 玄武인 主山을 능가하는 위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 案山은 主客 혹은 朝廷의 王과 臣下가 마주 대하고 앉은 가운데의 卓床과 같은 機能이므로 이것은 朝山을 능가하여 커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좀더 詳述하면 明堂의 北側 山이 가장 웅장하고 높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南쪽은 그보다 낮아야 함은 물론 明堂의 안쪽에 가까운 山은 더욱 낮아야 할 것을 요구하여 日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側 山은 西側 山보다 낮아야 하고 낮더라도 樹木은 있어야 한다. 이러한 明堂의 立地가 어떠한 效果를 낼 것인가 하는 點은 後述할 것이다.

다음 得水土法인데, 물의 風水 上 重要性은 모든 述法書가 한결같이 得水 혹은 破水 혹은 水局에 많은 部分을 할애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거니와 琢玉斧의 “夫婦交而孕成 山水交而地結”<sup>21)</sup>이란 말로써 잘 짐작할 수 있다. 즉, 人의 夫婦가 합하여야 子孫을 갖듯이 山水도 結合하여야 만이 地를 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山水의 關係와 水局의 重要性은 다음의 引用文으로 더욱 잘 알 수 있는데, “무릇 水는 來龍의 血脈氣內에 聚하여 外泄하는 것이니 其法은 대개 山은 陰이고 水는 陽이라 본다. 山은 本靜이라 用事를 못하니 婦道와 같고 水는 本動하여 出入 用事를 하니 夫道와 같다. 婦가 美好해도 夫性이 凶惡하면서 어찌 和合하며 生成의 理가 있으며, 婦가 혹 嫖母라도 夫性이 仁善하면 愛護를 不怠

17) 姜錫午, 1971, 新韓國地理, 새글사, 서울, p. 38, p. 67.

18) 崔昌祚, 朴英漢, 前揭書, p. 23.

19) 村山智順, 前揭書, pp. 49~76.

20) 韓松溪, 前揭書, p. 34.

21) 琢玉斧, 卷之一 陰陽歌, 風水地理叢書, 1969, 서울, 景仁文化社, p. 10.

하여 마침내 子孫이 振振하고 綿綿의 富貴를 볼 것이니 이렇게 推究하면 山家의 吉凶禍福은 전혀 水法에 있으니 어찌 잘 詳察치 않겠는가. 經曰, 千山の 吉함이 능히 一水의 害를 救치 못하고 一水의 害가 능히 百子の 殃이라 하니 참될 말 이로다.”<sup>22)</sup>하여 藏風보다 오히려 得水를 위로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生氣는 界水則止라 하였는데 實際에 있어서의 得水法은 매우 複雜한 양상을 띠며 나타난다. 대개의 術法書에 나타난 得水法의 原則은 一定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 因한 發福爲害의 部分을 삭제한다면 아래와 같다.

즉, 得水의 眞法은 眞龍과 眞穴에는 水法도 合하니 曲屈됨이 有情하여 來해도 冲치 않으며 去해도 直치 않으며 橫해도 返치 않고 斜해도 急지 않아서 橫으로 逆抱와 彎環하고 來는 玄字形으로 去는 굴곡할지니 清水가 모여 있어야 좋고, 傾斜하고 急流하면 못쓰며, 八字로 分開해도 안 되고 川字로 流하고 峯이 傾斜지며 急瀉急流해도 안 되고, 直來直射해도 안 되고, 澄清하면 좋으나 汚濁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知覺上 悠長한 水勢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實際地形上에서 그와 같은 悠長한 水勢를 찾는다는 일이 결코 理論과 부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術法的 性格을 助長하는 結果를 빚게 되는 것이지만 몇 가지는 圖式化가 可能하여 本考에서는 우선 그것만을 重點의로 다루고 其他의 法術은 다음 研究로 미루고자 한다.

得水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合水와 得破水(혹은 得水와 破水)로 일컫는다.

合水라고 하는 말은 물이 합친다는 뜻인데 墓地의 前後左右는 內靑龍·白虎의 內面에서 흐르는 물이 墓地 앞에서 合한다는 말로 墓地 周圍의 自然環境을 지칭한다. 來龍과 靑龍·白虎가 造化를 完全하게 이루게 되면 自然的으로 合水의 環境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合水의 理論을 風水에서 重視하는 것은 水는 祿이라 하여 흘러지지 않고 墓地를 中心으로 正面에서 合水를 해야 陰陽수가 합하여 祿을 保全하기 때문이다(그림 2).

風水原理로 보아 合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



그림 2. 合水의 原理

이 前面에서 順流할 수 없고 靑龍과 白虎의 保護 陵線에서 흘러온 水, 즉 祿을 내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靑龍·白虎에서 흘러나온 물이 穴前에서 合水하면 左右側의 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므로 墓地 앞의 土壤을 浸蝕하는 現象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墓地 周圍의 地勢가 均衡잡혀 있을 것을 意味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靑龍·白虎의 물이 墓地 直前에서 合水하면 물이 부딪혀 急한 물이 流速이 減少되어 浸蝕을 방지할 수 있다는 意味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得水와 破水是 外部的 環境이며 靑龍·白虎의 外部 또는 坐版의 主嶺 밑에서 墓地의 맨 앞을 흘러가는 물을 말한다. 물이 흘러오는 方向을 得水라 하고 물이 흘러나가는 곳을 破水라 한다(그림 3)<sup>24)</sup>. 陽基風水로서 國都인 서울에 譬喩하면 漢江이 그것인데 이는 總稱하여 得이라 부르기도 한다.

요컨대 得水法에서는 衆山에 대해서 泉水가 모여드는 것이 좋고, 그 물은 局穴을 향해 求心的으로 中和·協心의 정세를 가지고 穴中의 生氣 聚注 왕성하게 하고 또한 生氣의 융합 조화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適格으로 삼는다.<sup>25)</sup>

以上에 열거한 龍脈·藏風·得水의 判斷이 끝

22) 金榮昭, 前掲書, p. 131.

23) 黃日淳, 1961, 風水地理學概要, 서울, 博文閣, pp. 38~39.

24) 黃日淳, 前掲書, pp. 40~43.

25) 李熙德, 前掲書, p. 207.

研究는 그 價値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7)</sup>

#### 4. 聚落 및 慰樂空間의 妥當性 檢討

地理學의 分析에 있어서 歷史的인 方法 또는 發生論的인 方法을 必要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過去의 狀態에 關心을 안 가질 수 없다.<sup>28)</sup> 風水도 그 自體의 內容을 究明하는 것만으로 地理學的 分析의 意味를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聚落 및 慰樂空間의 妥當性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價値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陽基의 경우는 前考에서 서울을 例로 하여 分析한 結果, 그 風水의 原理에 의한 立地選定이 상당히 合理性을 띠고 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즉, 山水環抱, 水口關鎖, 內外水流逆勢 등의 風水原則이 政治·軍事上으로나 運輸·交通上으로나 自然景觀의 美的인 點에 있어서나 洪水發生時의 利點에 있어서 매우 良好하다는 것이었다.<sup>29)</sup>

陰宅에 있어서는 陽基와 달리 明堂이 比較的 좁기 때문에 合理性을 찾아 내기가 무척 힘들지만, 山水結合을 提示할 수 있다는 點에서 特殊한 小規模 聚落空間으로서의, 特히 慰樂空間으로서의 價値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慰樂空間(contacting space)이란 第三空間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며 휴식하는<sup>30)</sup> 것이 本意이지만 本考에서는 概念을 擴大하여 recreation area 혹은 resort area의 意味로도 使用할 것이다. 그런데 慰樂이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慾求나 希望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要因만을 가지고 이것이라 斷定할 수는 없는 것이며 極端的인 경우 不毛의 曠野도 慰樂的 機能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全的으로 自發的인 意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sup>31)</sup> 陰宅의 慰樂空間의 妥當性 與否는 主觀的인 判斷으로 흐를 위험이 있음을 認定치 않을 수 없다.

本考에서는 大衆의 慰樂空間選好에 관한 心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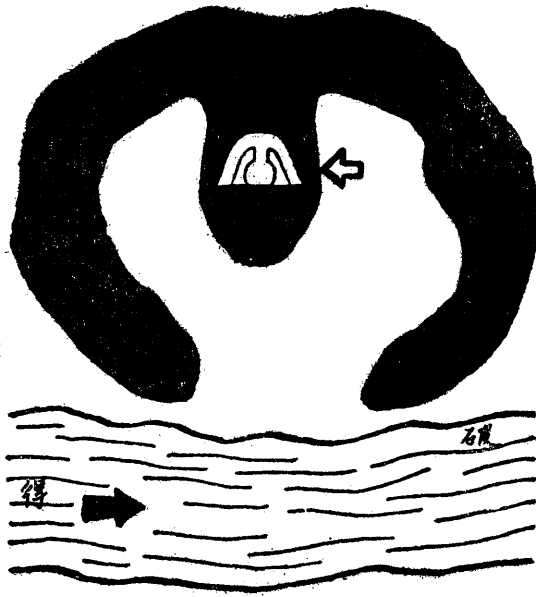


그림 3. 得破水의 原理

다면 最終的으로 占穴 혹은 定穴을 하게 된다. 定穴은 風水中 가장 決定的인 法術로서 朱子는 “所謂定穴之法譬如針灸 自有一定之穴 而不可有毫釐之差”<sup>26)</sup>라고 하여 그 추호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定穴은 各人各色으로 특히 그 一般原理를 도출키 어려우며 本考에서도 定穴法에 대한 解釋은 다음 研究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그 中의 坐向인 穴의 方位는 상당히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陰陽의 中和를 구하고 五行의 相生을 찾아서 生氣 왕성한 곳을 占定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 太陽의 열과 빛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으면서도 여름철의 暴炎은 피할 수 있는 곳이 最適이다. 坐向은 陰陽 五行과 十干·十二支를 結合하여 만든 方位說定에 의하여 決定되는데 關聯分野의 關心者가 研究하면 재미있는 結果가 나오리라 생각되지만 本考에서는 이 部分도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 陰陽說의 科學的 合理性 與否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오늘날 陰陽論은 分明히 미신만을 파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밀거름으로써 해서 東洋科學이 世界科學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주장하는 學者도 있는만큼, 이에 대한

26) 村山智順, 前掲書, p. 100.

27) 金容雲, 1976, 文化 속의 數學, 玄岩社, 서울, pp. 141~157.

28) 盧道陽, 張保雄, “歷史·文化地理學”, 1976, 地理學, 第13號, 大韓地理學會, 서울, p. 36.

29) 崔昌祚, 朴英漢, 前掲書, pp. 31~34.

30) 黃鑄周, 1978, 都市計劃論, 未來產業社, 서울, pp. 14~19.

的인 社會調查가 되어 있지 못한 狀況에서 부득이 상식범위 內에서의 慰樂空間과 陰宅과의 關係를 찾아보는데 局限시킬 수밖에 없었다.

陰宅은 山川의 景概가 壯嚴한 곳에서 山의 永遠한 氣像과 精氣에 同化하고자 하는 人間의 希願을 받아들이는 立場에서 選擇되어진다.<sup>32)</sup> 이것은 慰樂空間의 原則에 그대로 合致되는 것이기 때문에 分析의 여지도 없이 당연한 陰宅의 慰樂空間의 機能으로 생각할 수 있다. 陰宅의 藏風·得水法은 매우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山岳觀光地의 立地條件과 對比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陰宅風水原則이 一致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sup>33)</sup> 立地條件中 補完條件은 人工的 施設과의 關係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成立條件에 對해서만 考察할 것이다.

첫째, 地形條件으로 標高는 山岳觀光地에서 年中利用을 고려하여 800~1,000 m가 바람직하다고 規定되어 있으나 風水에서는 그에 關係없이 龍脈인가 아닌가에만 條件을 두어 事實上 標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傾斜는 10° 以下의 分布로 斜面의 主方向이 日照量 및 居住性과 有關하며 緩斜面이 클수록 좋다고 했는데 이는 前述한 藏風法과 그대로 一致하는 條件이다.

둘째, 氣候條件인데 主로 여름철에 不快指數가 적고 快適性과 居住性이 좋을 것을 條件으로 삼는 것이 山岳觀光地인 까닭에, 本考에서는 坐向을 언급치 않아 부득이 分析할 資料가 없다.

셋째, 市場性으로 都市에서 볼 수 없는 自然景觀, 아늑한 분위기, 넓은 場所 등을 條件으로 삼는다. 이것도 分析의 여지없이 그대로 陰宅과 一致함을 알 수 있다.

네째, 水理條件으로 물의 存在는 景觀에 좋은 效果를 주는 것이며 그의 便利性은 觀光地로의 開發可能性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要素라고 했다. 이는 上述한 得水法에서 이미 물의 存在를 陰宅의 必要不可缺한 要素로 說明했으므로 兩條件은 一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34)</sup> 이 水理條件은 風水에서 마지막 定穴段階의 判斷基準으로

쓰이는 郭景純의 五不葬法<sup>35)</sup>에도 間接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는 童山, 斷山, 石山, 過山, 獨山의 다섯 가지를 피하라고 하였는데 우선 童山이란 草木이 나지 않는 붉은 山으로 水理와 關係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斷山이란 무너져거나 끊어진 山으로 地下水脈의 斷絶을 뜻하며, 石山이란 물의 有無와는 直接 關係가 없으나 水理開發 혹은 물의 便利한 利用이라는 側面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 場所이다. 過山은 다른 穴이 되는 곳으로 끌고나간 山을 말하는데 峯間稜線이기 때문에 물과 關係가 적은 곳으로 본 듯하다. 獨山은 홀山으로 외롭게 露出되어 無情한 山을 말한다.

그 외에도 楊筠松의 三不葬法, 寥金精의 六戒, 靑鳥經에 일컫은 不相 여덟 가지, 龐金精의 穴面四病, 李淳風의 脈의 八病<sup>36)</sup> 등이 모두 水理에 關係되는 條項을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陰宅의 立地가 慰樂空間으로서의 機能을 수행할 充分한 條件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本質적으로 死後의 人間을 매장한 곳이기 때문에 心理上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陰宅立地가 그러한 妥當性을 어느 程度 내포하고 있다는 意味에서의 價値를 갖는 것일 뿐, 現在 陰宅으로 쓰여진 明堂의 慰樂空間으로서의 開發可能性을 시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陰宅의 代表的 例인 王陵의 경우는 歷史景觀으로서의 價値와 上述한 陰宅의 慰樂空間의 機能이 合致하여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 自體로서의 慰樂의 妥當性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王陵은 美國의 屋外 recreation 資源開發委員會의 區分에 의하면 等級Ⅲ, 自然環境地區와 等級Ⅳ, 歷史的·文化的地區의 複合的 場所가 된다.<sup>37)</sup> 産業化와 都市化에 의한 屋外 recreation 場所의 需要激增은 再言의 여지도 없거니와, 都市 特히 서울 주변 王陵의 上記한 目的으로의 用途는 매우 큰 것이라 판단된다.

31) Sessoms, H.D., H.D. Meyer & C.K. Brightbill, 1975, *Leisure Service: The Organized Recreation & Park System*, 5th. ed., N.J., Prentice-Hall Inc., pp. 60~64.

32) 黃日淳, 前揭書, pp. 4~5.

33) 山岳觀光地의 立地條件은 國際觀光公社, 1978年刊, 國民觀光開發理論 및 外國의 開發事例, pp. 46~47에 따름.

34) 資料는 日本觀光協會의 通用되는 調查報告書를 利用.

35) 韓松溪, 前揭書, pp. 246~247.

36) 韓松溪, 前揭書, pp. 247~251.

37) 朴宣熙, 1974, “先進國 Outdoor-Recreation 企劃과 施設標準에 關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第二卷, 第二號, 서울, p. 19.

陰宅의 藏風·得水·定穴法이 慰樂空間立地로서의 妥當性を 갖는 만큼, 가장 그 原則에 잘 따른 王陵도 역시 좋은 條件일 것이며, 屍體의 埋葬地라는 心理的 압박감도 그것이 歷史景觀이므로 完全히 그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本考의 範圍 밖이기는 하지만 王陵이란 우리들의 文化·歷史에 대한 創造의 기여를 表現함으로써 國民教育的 機能도 수행할 수 있다. 創造의 기여란 文化的 特性이 景觀이라는 環境樣式으로 한 文化를 반영하는 映像으로서 서로간의 相應성을 의미한다.<sup>38)</sup> 다시 말해서 陰宅風水原則에 입각한 場所 選定으로 慰樂空間立地上的의 物理的 妥當性(physical feasibility)을 포함하면서 歷史的·文化的인 景觀價值까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 5. 要約 및 結論

韓民族의 가장 오랜 土地觀인 風水는 陽基와 陰宅의 두 가지로 大分된다. 陽基의 合理的 側面은 筆者의 다른 研究에서 밝힌 바 있거니와 本考에서는 陰宅의 慰樂空間的 妥當性與否에 焦點을 두고 주로 藏風法과 得水法의 立場에서 다루는데 局限하였다.

藏風은 生氣가 흠어짐을 막기 위한 條件으로 四圍가 山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

러나 各山의 規模와 높이는 術法上 差異를 띠게 된다. 그 差異는 季節風, 日射의 方向, 環境知覺上 安定感의 感知等 여러 면에서 慰樂條件上 肯定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得水도 合水의 原理와 得破水의 原理가 明堂의 浸蝕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環境이 되며 水勢의 全般的 樣狀이 悠長함을 취하고 있으므로 慰樂空間의 條件과 水理開發面에서 妥當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陰宅의 基地選定과 山岳觀光地의 立地條件을 對比分析시킨 결과 한층 더 陰宅의 慰樂的 機能의 妥當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만 墓地라는 先入見이 心理的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陰宅 即 慰樂空間이라는 等式은 成立할 수 없다.

그러나 王陵은 陰宅의 가장 代表的인 例로서, 歷史景觀이라는 事實이 墓地라는 압박감을 해소시킬 수 있고, 陰宅의 明堂이므로 慰樂空間的 機能을 補完해 주고 있어 本考에서 提示한 目的에 相應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陰宅選定時 매우 重要的한 하나의 要素인 定穴의 坐向은 本考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앞으로 研究되어 風水思想의 地理學的 解釋에 의한 韓半島의 歷史·文化的 地域性究明에 重要資料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思量된다.

—國土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

38) 陳英煥, 1978, 歷史景觀의 再構成에 關한 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造景學碩士學位論文, 서울, p. 10.



# A Geographical Explanation of “Eum-Taek Poong-Soo”, a Korean Traditional Geomancy

Chang-Jo Choi\*

## Summary

“Poong-Soo” is a kind of Korean traditional geomancy. Generally we divide it into two kinds. One is the “Eum-Taek Poong-Soo[陰宅風水]”, the selection of burial grounds and the other is the “Yang-Taek Poong-Soo[陽宅風水]”, the selection of building sites and settlement location.

The author studied about “Yang-Taek Poong-Soo” Which is published at Geography, -Chiri Hak-, No. 17, June 1978, issued b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In that thesis the author reached a conclusion that superstitious “Poong-Soo” has a certain value to be discussed from the modern geographical angl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Poong[風] signifies weather or climate and Soo[水] means using water condition. That is a kind of traditional settlement location theory in Korea.

In this thesis the author explains “Poong-Soo” focusing on “Eum-Taek”, from a viewpoint of site for recreation and resort area. Site of “Eum-Taek” is good for that utility because of its mountainous landscape and existence of streams. Its environment of outskirts is naturally harmonious and symmetrical.

Ancient people of Korea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customs of filial piety thought grounds as a maternity. They gained almost all of their necessities of life from the grounds so they regarded the influences of them as a decisive fact. They worshiped their ancestors in a good place of scenic beauty for when they buried their ancestor's dead body at a good site, they could live a happy life, they thought.

Moreover, in case of royal mausoleum, typical representatives of “Eum-Taek”, we regard it as the best recreational area because of its fin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of its value for historical landscape.